_____월 _____일

다음은 기사의 일부분입니다. 소리 내어 기사를 읽고 또박또박 베껴 써 보세요.

(생략) 영화 속 자홍(차태현)은 '어머니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. 잘못했다고 말씀드려야 합니다'라고 말한다. 감독은 "실은 내가 평생 가슴에 품어온 말"이라고 했다. "어머니가 오래 아프셨어요. 저 스물두 살 때 돌아가시기 전 2년간 중환자실에 계셨고, 저도 영화 속 자홍처럼 같이 죽어버릴까 나쁜 마음 먹기도 했고요." 그는 "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춘천 시장에서 하루에 고등어 1000마리씩 배를 갈랐고, 운전기사, 막노동까지 안 해 본 게 없다"고 했다. "신(神)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어 어머니를 만들었다는 말이 있잖아요. 나이 먹을수록 어머니 생각이 나고, 어릴 때의 객기가 부끄러워요. 저도 꼭 어머니께 용서를 빌고 싶었어요." (생략)

– 조선일보 2018년 1월 4일

이 기사의 제목은 무엇일까요? 알맞은 제목을 써 보세요.

정답은 100쪽에 있습니다.

오늘 읽은 신문 기사 중 마음에 드는 문장을 써 보세요.